

# 통일부 정례브리핑

2022.6.27.(월) 10:30, 조중훈 대변인(통일부)

안녕하십니까?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통일부 주요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부 장관은 지난주부터 종교계 지도자를 예방하고 새 정부의 남북관계 추진방향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교 손진우 성균관장을 조금 전 10시부터 예방 중에 있고, 금요일에는 천도교 박상종 교령을 예방할 계획입니다.

또한, 통일부 장관은 오늘 15시에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 참석하여 최근 남북관계 평가 및 윤석열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며, 화요일입니다. 내일 국립 6.25전쟁납북자기념관에서 개최되는 제9회 기억의 날 행사에 참석하여 격려사를 할 예정입니다.

기억의 날은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가 6.25 전쟁 기간 납북된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2010년부터 매년 6월 28일경 개최하고 있는 행사입니다.

이 외에 통일부 장관은 목요일에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회장단을 면담하고, 남북 인도적 협력을 비롯한 남북관계 추진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모두에서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현안에 대한 질문

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북한 대부분 지역에 폭우경보가 내려졌는데요. 핵실험 일정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통일부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답변>** 북한에 비가 내리는 상황과 핵실험과의 관련성은 군사적 판단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통일부 차원에서 확인해 드릴만 한 내용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한미 당국은 긴밀한 공조하에 북한의 주요 시설, 지역에 대한 동향을 면밀히 추적 감시하고 있으며,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모든 가능성에 대해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